



2023. 1. 6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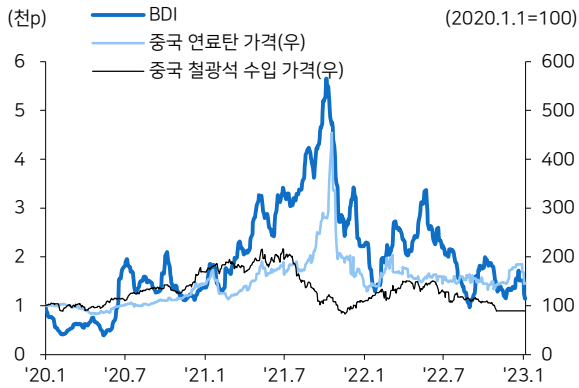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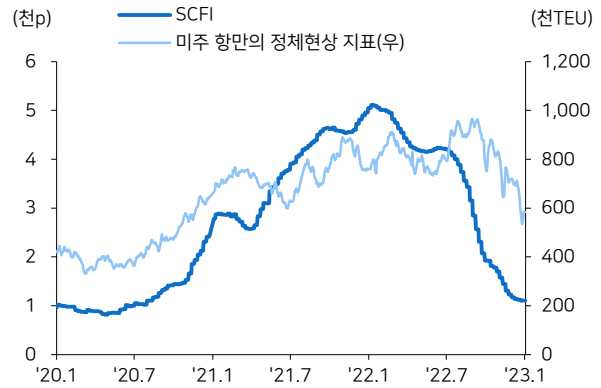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a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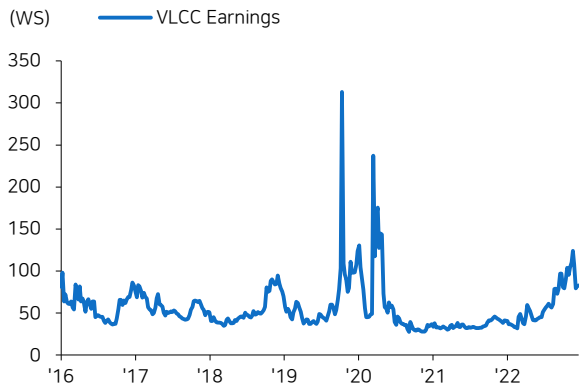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146.0p(-30.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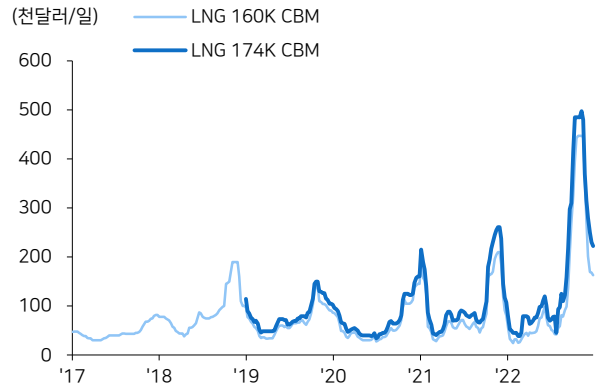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07.6p(+0.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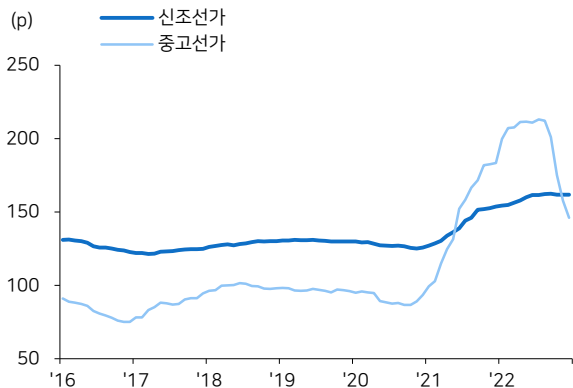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71.8p(-3.2p WoW)



LNG Spot 운임 163.0p(-5.0p WoW)
222.5p(-7.5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9p(-0.1p WoW)
146.0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49.3p(+2.5p DoD)
96.1p(+2.0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중국 "홍콩과 접경지역 왕래 8일 재개"

중국 정부가 1월 8일부로 홍콩과 접경지역 왕래를 재개한다고 보도됨. 2020년 1월 팬데믹 확산에 따라 닫혔던 두 지역간 육로 통행이 3년만에 자유화될 전망이다. 앞서 12월말 중국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입국자 시설 의무격리 폐지와 중국 국민의 점진적인 해외여행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논의

수년간 심각하게 대립해온 중국과 호주가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를 논의하며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은 이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고 알려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날 바오스틸, 중국 대당집단, 중국화능집단공사, 중국에너지투자공사 등 중국 내 주요 석탄 수입 업체 4곳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됨. 중국산 석탄 생산량은 지난 1~11월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나, 품질 좋은 호주산 석탄 수요는 클 것으로 언급됨. (조선Biz)

팬오션, 대형 LNG운반선 첫 투입

팬오션이 2023년부터 대형 LNG운반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에서 174,000CBM급 LNG선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알려짐. 팬오션은 2020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대형 LNG선 장기계약을 체결해 2022년말까지 10척의 대형 LNG선 장기계약을 확보했다고 알려짐. (한국경제)

Rig owner starts the year with almost \$500 million order book boost

시추장비 업체 Transocean이 연초부터 약 4.9억달러규모 수주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총 5척에 대한 신규 용선계약 및 기존 계약 연장으로 알려짐. Ultra-deepwater 드릴십 100일 용선료는 약 4,300만달러 수준으로 알려짐. (Upstream)

Adnoc unveils \$15 billion investment plan for decarbonising operations

Adnoc이 150억달러규모 탈탄소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Adnoc 이사회는 2050년까지 탈탄소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함. 친환경 에너지,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에 투자될 것으로 설명함. 2030년까지 CO2 포획 용량을 500% 이상 확대해 5MTPA까지 달성할 것으로 언급됨. (Upstream)

First gas from huge Turkey project set to flow this quarter

2023년 3월말 터키 흑해 대규모 Sakarya 프로젝트 PNG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도됨. Phase 1은 10개 해저 광구에서 일일 1,000만CBM을 생산, Phase 2는 일일 4,000만CBM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짐. 연간으로 환산 시 각각 3.5BCM(십억큐빅미터), 14BCM으로 알려짐. (Upstream)